논어 13편 자로 14장 · 원문·풀이

冉子退朝，子曰：「何晏也？」對曰：「有政。」子曰：「其事也！如有政，雖不吾以，吾其與聞之！」

독음 · 염자퇴조 자왈 하안야 대왈 유정 자왈 기사야 여유정 수불오이 오기여문지

쉬운 풀이(요약) · 염유가 계씨 집안의 일을 정사라고 하자 공자는 나라의 공적 정치와 권문세가의 사적인 일을 구별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冉 가는 털 늘어질 염 염 / 子 아들 자 / 退 물러갈 퇴 퇴 / 朝 아침 조 조

曰 가로 왈 / 何 어찌 하 하 / 晏 늦을 안 안 / 也 어조사 야

對 마주볼 대 대 / 有 있을 유 / 政 정사 정 정 / 其 그 기

事 일 사 사 / 如 같을 여 여 / 雖 비록 수 수 / 不 아닐 불

吾 자기 오 오 / 以 써 이 이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聞 들을 문 문

之 갈 지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